

제주방언의 피동 연구*

— ‘-어지다’를 중심으로 —

김보향(제주대)

<목차>

- | | |
|-------------------|----------------|
| 1. 서론 | 3. ‘-어지다’의 다의성 |
| 2. 제주방언 피동의 실현 양상 | 4. 결론 |

1. 서론

피동(被動)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주어로 나타난 인물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행위를 말한다(남기심·고영근, 2009:295). 피동을 이루는 방법은 ‘되다, 받다, 당하다’ 등 피동의 의미를 갖는 어휘에 의하거나, ‘-이-, -히-, -리-, -기-’의 피동접미사 또는 ‘-어지다’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방언의 예에서 살펴보자.

- (1) ㄱ. 이추록 오염되지 안할 때니깐계.(그처럼 오염되지 않을 때니까.)
나. 그런 디, 길 탕기는 디 영 코 낭 놔두민 그 길에 똥이 걸리는 거주.(그런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19582).

데, 길 다니는 데 이렇게 올라미 놔서 놔두면 그 길에 핏이 걸리는
거지.)

ㄷ. 또 무시것덜 공출해라 허는디 우리 오란 뒷해엔 끈어져불언.(또
무엇들 공출해라 하는데 우리 와서 이듬해엔 끊겨버렸어.)

(1)은 모두 피동의 문장이다. (1ㄱ)의 밑줄 친 부분은 ‘오염+되다’의 구성으
로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1ㄴ)의 ‘걸리다’
는 동사 ‘걸다’의 어근 ‘걸-’에 피동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사로, ‘올가미에
핏이 걸리다’의 의미로 실현되고 있다. (1ㄷ)의 ‘끈어져불언’은 ‘끈다(끊다)’에
‘-어지다’와 보조용언 ‘불다(버리다)’가 결합한 것이다.

(1ㄱ)처럼 ‘되다, 받다, 당하다’가 결합하여 피동을 이루는 것을 어휘적 피동이
라고 한다. 그리고 (1ㄴ)과 같이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피동을 이루는 것을
파생적 피동, (1ㄷ)처럼 ‘-어지다’가 결합하는 것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공통어와 비교했을 때 제주방언의 피동에서 특이한 점은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은 생산성이 매우 낮고 ‘-어지다’형 피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쓰인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방언에서는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형태의 피동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 반면, ‘-어지다’형이 널리 사용된다.

(2) ㄱ. 그때 우리 아버지네광 혼디 간 어른이 고향에 혼 번 오라 보지
못해연. 그냥 질 막아전게.(그때 우리 아버지네와 같이 간 어른이
고향에 한 번 와 보지 못했어. 그냥 길 막혔어.)

ㄴ. 경허난 이디 꺼꺼지난, 영 사름이 트라진 거 아니.(그러니까 여기
꺾이니까 이렇게 사람이 비뚤어진 거 아니.)

ㄷ. 경허민 막 일본말로 퀘기 많이 나까접시벤 허멍 인사덜 허멍.(그러면
일본말로 고기 많이 낚이냐고 하면서 인사들 하면서.)

(김보향, 2015:65)

(2)의 밑줄 친 ‘막아지다, 꺼꺼지다, 나까지다’는 ‘막다, 꺼뜨다(꺾다), 나끄다
(낚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형태로, 공통어에서라면 ‘막히다, 꺾이다, 낚이다’

의 형태로 쓰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이들 피동문이 모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송상조(1996:286)는, 제주방언에서는 습관적으로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어지다'의 결합한다고 하였다. 강정희(2001:3~5)도 제주방언 전 지역 집단에 걸쳐서 '-어지다'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으며, '-이'계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문은 공통어의 영향인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방언에서는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제주방언 피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제주방언 방언 화자의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통어와 차이를 보이는 점에 주안점을 피동의 실현 양상을 살피고 제주방언 피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어 지다'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겠다.

현대 국어에서 피동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어 왔다.¹⁾ 이 연구는 방언 화자의 구어에 관한 연구로, 어떤 표현이 피동 표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피동의 범주에 관심을 두기보다 피동 표지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어학의 기존 연구에서 피동 표현으로 간주된 모든 형태의 피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겠다. 구술 자료집에서 형태론적으로 어휘적 피동,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의 문장을 선별하여 실제 발화에서 각 피동형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파악하겠다. 그리고 제주방언 피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사적 피동의 형식을 갖는 요소가 문장 안에서 실제로 어떠한 의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이에 대해서는 남수경(2011)에서 정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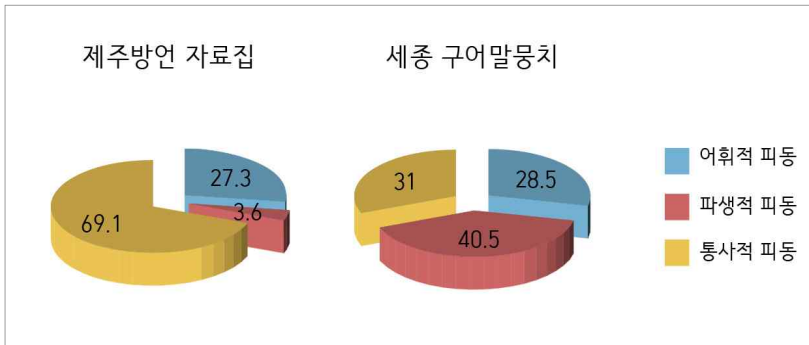
2. 제주방언 피동의 실현 양상

이 글은 제주방언 피동의 실현 양상과 그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방언 연구의 예들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들은 실제 실현되는 언어의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언의 언어 현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살피기 위해, 구체적 자료로서 방언 화자의 구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살펴볼 자료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발행한 <2018년 제주어구술자료집> 중에서 구좌읍 한동리 편과 애월읍 고내리 편이다.²⁾

우선, 자료집을 분석하여 제주방언에서 피동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자료집에서 피동 표지가 결합된 형태의 443개 문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중 '되다, 받다, 당하다'가 쓰인 어휘적 피동은 121개 문장으로 전체 27.3%이었다. 피동접미사가 결합된 문장은 3.6%(16개), '-어지다'의 문장은 69.1%(306개)로 나타났다.

한편, 김세환(2007)은 '21세기 세종계획 구어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피동의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구어말뭉치 자료에서 '되다, 받다, 당하다'의 피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은 40.5%, '-어지다'의 피동은 31%로 나타났다.

2) <2018 제주어구술자료집>은 2014~2016년 3년 동안 매년 제주 12개의 시·읍 지역에서 1개 마을을 조사지점으로 조사하여 정리한 자료를 표준어역한 것이다. 80대 이상의 그 지역 토박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조사마을, 제보자 일생, 발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의례, 민간요법, 경험담'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료집에는 10시간 분량을 전사하고 표준역하여 실었다. 이 글에서 분석한 자료집은 필자가 조사한 지역의 것으로 각 자료집의 제보자는, 구좌읍 한동리 편은 오태봉(여, 1926년생), 오문봉(남, 1932년생)이고, 애월읍 고내리 편은 고두규(여, 1919년생) 장윤삼(여, 1928년생), 고원방(남, 1933년생)이다.



〈그림 1〉 피동의 실현 양상

제주방언에서 피동의 실현 양상을 김세환(2007)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되다, 받다, 당하다’의 어휘적 피동은 27.3%와 28.5%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반면 파생적 피동은 3.6%와 40.6%, 통사적 피동은 69.1%와 31%로 실현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방언에서 ‘-어지다’가 사용되는 비율은 70%에 가까운데, 얼마만큼 ‘-어지다’의 피동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1. 어휘적 피동 실현 양상

- (3) ㄱ. 동글랑허게 맨들어근에가 그거 발효되민이 그 저 뭐인가 몰룬다.(동그렇게 만들어서 그거 발효되면 그 저 뭐인가 말린다.)
 ㄴ. 늬의 밧디 거라도 허가받으민 돼주.(남의 밧에 거여도 허가받으면 되지.)
 ㄷ. 나도가 군대에서 부상당행 제주 병원에 왔저.(나도 군대에서 부상당해서 제주 병원에 왔어.)

(3)은 피동의 의미를 갖는 어휘인 ‘되다, 받다, 당하다’에 의한 피동이다. ‘되다, 받다, 당하다’ 중 ‘되다’는 ‘하다’에 선행하는 작용성 체언과 가장 잘 결합한다. 제주방언 구술 자료에서도 어휘적 피동 가운데 ‘되다’가 사용된 예가

가장 많았다.³⁾

우인혜(1997)는 '되다'가 주어사 사물일 때도 두루 쓰이는 것은 의미적으로 중립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피동적 변화 이외에 다른 뜻이 없이 쓰인다는 것이다. '되다'는 피동 주어사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두루 쓰인다는 점이 주어사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당하다', '받다'가 잘 쓰이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되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특히, 자연 변화에 의한 피동적 상황일 때 자주 쓰인다는 점에서, '-어지다'에 의한 통사론적 피동과도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중립성을 가진 '되다'와는 달리 '받다'와 '당하다'는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의 의도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하다'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성 명사에만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피동을 단순히 피행위자가 행위주에 의해 어떤 영향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영향, 즉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의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는 경우에는 '받다'보다는 '당하다'가 쓰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내포하는 상황에서는 주로 '당하다'가 쓰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당하다'와 '받다'의 본래 어휘적 의미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 파생적 피동의 실현 양상

파생적 피동은 현대 국어에서 대표적인 피동법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타동사에 '-이-, -히-, -리-, -기-'가 결합하여 기존 타동사를 변환시켜 피동사를 파생하고, 이 피동사에 의해 피동 구문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파생적 피동은 앞의 <그림 1>에서 보듯이 제주방언에서는 그 분포가 극히 제한적이다.

(4) ㄱ. 돌려근에 그걸 이레 나오지 못하게 걸리게시리 췌로 영 해가지고서.

3) 121개의 어휘적 피동 가운데 '되다'가 결합한 문장은 100개였고, '받다'의 문장은 20개, '당하다'의 문장은 1개에 지나지 않았다.

(돌려서 그걸 이리 나오지 못하게 걸리게끔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

ㄴ. 그걸 영 막 눌러 놔근에 물 서꺼지민 취영.(그걸 이렇게 마구 눌러 놔서 물 섞이면 죄어서.)

ㄷ. 나막신은 나무로 영 코 돌리고 해영, 아래 발 돌리고 해근에.(나막식은 나무로 이렇게 코 달리고 해서, 아래 발 달리고 해서.)

ㄹ. 경해야 먼 디서도 보일 거 아니가?(그래야 먼 데서도 보일 거 아니냐?)

ㅁ. 저 무시커 한문으로 쓰여근에 딱.(저 무엇 한문으로 쓰여서 딱.)

ㅂ. 초파일 뒤서 쫄리는 사람, 그러는 사람도 있고.(초파일 뒤서 쫄리는 사람, 그러는 사람도 있고.)

(5) ㄱ. 그건 만이 뺏겼주, 소도 만이 뺏기고.(그건 많이 뺏겼지, 소도 많이 뺏기고.)

ㄴ. 거 벌 쏘인 것은 그냥 저절로 좋아났져.(거 벌 쏘인 것은 그냥 저절로 좋았었어.)

(4)는 ‘걸다, 누르다, 돌다(달다), 보다, 쓰다, 찌르다(자르다)’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걸리다, 눌리다, 돌리다, 보이다, 쓰이다, 쫄리다’로 실현되고 있다. (5)는 ‘뺏다, 쏘다’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뺏기다, 쏘이다’로 실현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피동접미사가 결합하여 쓰인 (4)의 동사들은 같은 자료집 안에서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도 실현되고 있다. 다음의 (6)의 문장이 그 예들인데, 이는 제주방언에서 피동접미사가 결합하는 피동이 유연적임을 보여준다. (4)의 밑줄 친 부분을 ‘-어지다’가 결합한 (4)’로 바꾸어도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 준다.

(6) ㄱ. 경허난 이 줄이 이디 왕 걸어정 무끄게 뒤 잇수게.(그러니까 이 줄이 여기 와서 걸려서 묶게 돼 있어요.)

ㄴ. 비 맞으멍 눌러진 걸 일으켜 세우멍.(비 맞으면서 눌린 걸 일으켜 세우면서.)

ㄷ. 장기에 거 부쁜 것이 영 돌아진 것이 오리목이라.(쟁기에 거 붙은

것이 이렇게 달린 것이 '오리목'이야.)

- ㄷ. 봐지는 대로 그냥 거령 허면은게.(보이는 대로 그냥 떠서 하면.)
- ㄹ. 그디 야감젓이렌 써전?(거기 야감젓이라고 쓰였어?)
- ㅂ. 그것만 쫄라지게 해도 뗏주만은.(그것만 잘리게 해도 뗏지만.)

- (4)' ㄱ. 둘려근에 그걸 이레 나오지 못허게 걸어지게시리 쉼로 영 헤가지고서.
 ㄴ. 그걸 영 막 눌러져 뇌근에 물 서꺼지민 쉼영.
 ㄷ. 나막신은 나무로 영 코 돌아지고 헤영, 아래 발 돌아지고 헤근에.
 ㄹ. 경해야 먼 디서도 봐질 거 아니가?
 ㄹ. 저 무시거 한문으로 써져근에 딱.
 ㅂ. 초파일 뉘서 쫄라지는 사람, 그러는 사람도 있고.

(4)와 (4)'의 두 문장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⁴⁾ 실제로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두 문장 사이에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더라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오히려 고령층 화자들은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4)의 문장보다 '-어지다'가 결합한 (4)'의 문장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⁶⁾ 70, 80대의 고령층 방언 화자들이 '-어지다'의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상황은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이 공통어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강정희(2001:3~5)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일부 표현의 경우는 '-어지다'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못한 경우가

4) 이에 대해 강정희(2012:254~255)는 이 두 형태의 발화에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음을 방언 화자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수경(2011:259~260)은 이 두 표현 사이의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지다'의 피동이 행위의 과정을 통해 어떤 결과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고 접미피동사의 피동은 행위의 과정은 어찌되었든 변화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5) 조사는 피동 표현의 세대별 사용 양상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6) 고령층의 제보자는 구좌읍 한동리의 오문봉(남, 1932년생), 허정순(여, 1931년생)과 에월읍 고내리의 장윤삼(여, 1928년생), 고원방(남, 1933년생), 조천읍 함덕리의 고영기(남, 1939년생)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주어진 그림의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질문한 것으로 80대의 고령층에서는 대부분 '-어지다'형으로 표현하였다.

있다. (5)'가 그 예다.

- (5)' ㄱ. *그건 만이 뺏아졌주, 소도 만이 뺏아지고.
 ㄴ. *거 별 쏘아진 것은 그냥 저절로 좋아났저.

(5)'는 '뺏다, 쏘다'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5)의 문을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바꾼 것이다. 강정희(2006:1245)는 제주방언에서 피동접미사에 의한 피동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어형은 '-어지다'형으로 교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강정희는 그 예로 '쫓기다'를 제시하였는데, (5)의 '뺏기다, 쏘이다'도 '-어지다'의 통사적 피동형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피동접미사는 타동사에 결합하여 피동사를 이룬다. 제주방언에서도 (4), (5)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동사 '걸다, 누르다, 들다(달다), 보다, 쓰다, 찌르다'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방언에서는 (7)과 같이 자동사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도 실현되고 있다.

- (7) 건 감기 들려야 계춤 나오는 거고.(건 감기 들어야 가래침 나오는 거고.)

(7)의 예에서 밑줄 친 '들리다'는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자동사 '들다'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피동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문장 안에서의 '들리다'는 '(감기가) 들다'에 의미로 쓰였다. 즉, 자동사에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피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방언에서는 이처럼 능동의 의미를 갖는 피동형 문장을 종종 볼 수 있다.

2.3. 통사적 피동의 실현 양상

파생적 피동이 타동사에 한정되는 반면 '-어지다'가 결합하는 통사적 피동은 결합되는 범위가 넓다. 현대 국어에서 '-어지다'는 타동사뿐만 아니라 자동사,

형용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제주방언 구술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도 그 수가 많지 않지만 형용사와 자동사에 결합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통사적 피동은 반드시 능동문에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 (8) ㄱ. 이제 경운기가 나고 허니까 사람이 좀 편리해졌주.(이제 경운기가 나고 허니까 사람이 좀 편리해졌지.)
 ㄴ. 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
- (9) ㄱ. 그냥 전렴병, 폐병들 든 덜 가전.(그냥 전렴병, 폐병들 든 덜 갔어.)
 ㄴ. 허명 허난 돌아와져닌 물어보래덜 오고.(어떻게 허니까 돌아올 수 있었니 물어보러들 오고.)
- (10) ㄱ. 아래 고망 뜰라진 거.(아래 구멍 뚫린 거.)
 ㄴ. 그 조풍뎡이, 올매 그 답아져난 올매 조풍뎡이라고 허주.(그 '조풍뎡이', 올매 그 답겼던 올매를 '조풍뎡이'라고 하지.)
- (11) 존 잘 불리지 안허민 중자가 잘 안 살앙 나당도 다 쓰러져불주.(조는 잘 밥지 않으면 중자가 잘 안 살아서 나다가도 다 쓰러져버리지.)
- (12) 그거 벗겨지면은 집이 왕 마당에 멍석에 널어.(그거 벗겨지면 집에 와서 마당에 멍석에 널어.)
- (13) 그 돌 쌓여진 거 그냥 있어.(그 돌 쌓인 거 그냥 있어.)

(8)은 '-어지다'가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고, (9)는 자동사, (10)은 타동사에 결합한 예다.⁷⁾ (11)과 같이 불규칙적 어근에 결합한 형태로도 쓰인다. 이뿐만 아니라 '-어지다'는 (12), (13)에서와 같이 사동사, 피동사에 결합하기도 한다.

7) 구술 자료에서 '-어지다'가 결합한 선행어를 분석하면 타동사인 경우가 단연 많다. 306개의 문장 중 타동사와 결합한 경우가 246개이고,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 24개, 자동사와 결합한 예가 18개이다. '자빠지다, 넘어지다('넘다'의 의미), 썩여지다('많다'의 의미), 쓰러지다' 등 '-어지다'에 선행하는 형식이 독립적인 용언으로 쓰이는 일이 없는, 이른바 불규칙적 어근에 결합한 예는 18개가 있다.

3. ‘-어지다’의 다의성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는 제주방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대 국어의 피동에 대한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다. 앞서 2장의 <그림 1>에서 살펴봤듯이 제주방언은 공통어에 비해 ‘-어지다’의 쓰임이 두드러 지다는 것은 확연히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어지다’를 ‘피동’의 표지로 다루고 있으나 그 의미 기능은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제주방언 구술 자료집>에서 얻은 ‘-어지다’의 문장을 의미 기능별로 나누고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3.1. 피동

현대 국어에서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어지다’가 타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또는 자동사에도 통합한다는 점에서 피동으로 보지 않는 논의들도 많다. 그러나 타동사에 결합하는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이며 이는 제주방 언에서도 마찬가지다.

- (14) 가. 그 돌 쌓여진 거 그냥 있어.(그 돌 쌓인 거 그냥 있어.)
 나. 막 돌 서끼진 밧.(마구 돌 섞인 밧.)
 다. 아래 고망 뜯라진 거.(아래 구멍 뚫린 거.)
 라. 그 조풍뎡이, 올매 그 담아져난 올매 조풍뎡이라고 허주.(그 ‘조풍뎡 이’, 올매 그 담겼던 올매를 ‘조풍뎡이’라고 하지.)
 마. (풍채) 그것이 영 알려래 더꺼지게.((풍채) 그것이 이렇게 아래로 덮이게.)
 바. 보리클도 우리 집이 어디 돌아져실 거라.(보리그네도 우리 집에 어디 달렸을 거야.)
- (15) 가. 윗은 다 가르차진 거.(윗은 다 뒤집힌 거.)

ㄴ. 이디 답이 다와졌지.(여기 답이 쌓였어.)

(14)의 밑줄 친 부분은 타동사 ‘쌓다, 서끄다(섞다), 딸루다(뚫다), 담다, 더끄다(덮다), 들다(달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다. (15)는 제주방언의 타동사 ‘가리치다, 답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피동의 의미로 쓰인 예들이다. 이들은 공통어에서라면 보통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형태인 ‘쌓이다, 섞이다, 뚫리다, 담기다, 덮이다, 달리다, ‘뒤집히다, 쌓이다’로 실현되겠지만 제주방언에서는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제주방언에서 피동접미사가 결합하는 파생적 피동의 비율이 낮고 ‘-어지다’형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처럼 공통어에서는 파생적 피동으로 나타나는 문장들이 제주방언에서는 통사적 피동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16) ㄱ. 기다령 굶양 터지면은 뭐인가 된장에 싸메든가.(기다려서 굶아서 터지면 뭐인가 된장에 싸메든가.)
 ㄴ. 조도 만딱 이추룩 허멍 털어져불주께.(조도 모두 이처럼 하면서 떨어져버리지.)
 ㄷ. 그 몰ㄱ레엔 허민 저건 다 까져불언 안 뉘고.(그 연자매엔 하면 저건 다 까져버려서 안 되고.)
 ㄹ. 그 꼬부라진 낭 쓸 때도 있거든.(그 꼬부라진 나무 쓸 때도 있거든.)
 ㄹ. 경혜근에 혼 사흘 허민 쉼가 좀 수근허게 이제 누그러져마씨.(그래서 한 사흘 하면 소가 좀 수근하게 이제 누그러져요.)
- (17) ㄱ. 뉘싸진 건 다 자기 거니까.(뒤집힌 건 다 자기 거니까.)
 ㄴ. 겐디 (갯담이) 지금은 헤싸져불영 멜도 안 들고 경.(그런데 ‘갯담이’ 지금은 허물어져버려서 멀치도 안 들고 그렇게.)

(16)과 (17)의 예도 피동의 의미를 갖는 문장들로, (16)은 공통어에서도 ‘-어지다’의 형태로 실현되는 예, (17)은 제주방언이 공통어와 다른 어형을 갖는 예들이다.

3.2. 가능

‘가능’은 능동주의 능력이나 의지가 행위의 원동력으로 작동한다고 인지할 때 얻어지는 의미다. 강정희(2012:255~256)는 제주방언에서 화자가 청자의 능력이나 의지를 직접 문제 삼는 직접 의문문에서 화자가 가능의 의미를 분명하게 분석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 (18) 가. 누가 혼자 가질라?
 나. 무시꺼옌 굴암신디 알아지크냐? (강정희, 2012:255)

(18)의 ‘가질라, 알아지크냐?’는 ‘갈 수 있겠니, 알 수 있겠니?’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가능의 의미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의문문의 발화에서 ‘-어지다’를 가능의 의미로 보는 것은 동작, 행위자의 능력과 의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지다’가 가능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의문문의 아닌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 (19) 가. 어떻 허난 돌아와져닌 물어보레덜 오고.(어떻게 하니까 돌아올 수 있었니 물어보러들 오고.)
 나. 목심이 질기난 살아진 거주.(목숨이 질기니까 살 수 있었던 거지.)
 (20) 가. 또 거름체로 나오는 거는 제기 헤지는 밥이 있주께.(또 거름체로 나오는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밥이 있지.)
 나. 게서 복개해부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하고 널리 이용헤지고.(그래서 복개해버리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하고 넓게 이용할 수 있고.)
 다. 그거 놓게 뉘민, 놔지면은 좋고.(그거 놓게 되면, 놓을 수 있으면 좋고.)
 라. (산디) 쨌여근에 영 데왕 허믈 무꺼진다고.(발버) 죄어서 이렇게 꼬아서 하면 묶을 수 있다고.)
 (21) 가. 일 년 내낭 떡어지주께.(일 년 내내 먹을 수 있지.)
 나. 윤디 허여근에 실밥을, 이런 디 꺼야 그믈을 알아질 거 아니라 게?(인두 해서 실밥을, 이런 데 꺼야 금을 알 수 있을 거 아니니?)
 다. 물만 깨와근에 그냥 그거 노면은 얼른 헤져.(물만 끓여서 그냥

그거 넣으면 얼른 할 수 있어.)

(19)는 자동사, (20)과 (21)은 타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예로 평서문에서도 '-어지다'는 가능의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21)은 '먹다, 알다, 하다'의 타동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로, '먹어지다, 알아지다, 헤지다'는 제주방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다. 보통 (21)의 예에서와 같이 '먹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가능의 의미로 쓰이지만, 능동의 의미일 때도 '-어지다'가 결합되는 것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한 구술 자료에서도 '먹어지다', '알아지다'가 각각 5회, 11회 쓰였는데, 모두 '먹을 수 있다', '알 수 있다'의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헤지다'는 7회 실현되는데 그 중 5회는 '할 수 있다'의 의미였다.⁸⁾

한편, 구어에서는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 다음과 같이 '-어지다'는 중의성을 갖기도 한다.

- (22) ㄱ. 이만씩 현 돌만 일러도 강이 잡아지는 거.(이만큼 한 돌만 일으켜도 게 (잡히는/잡을 수 있는) 거.)
 ㄴ. 이젠 영 섬피 넉넉한 거 소낭 가지라도 너벌허게 맨들아근에 영 꽃이른 씨 막아지게.(이젠 이렇게 끈게 넓적한 거 소나무 가지라도 넓게 만들어서 이렇게 끌면 씨 (막히게/막을 수 있게).)

(22ㄱ)의 '강이 잡아지는 거'에서 '강이(게)' 뒤에 조사는 생략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이때 생략된 조사가 '-가'라면 '게가 잡히는 거'의 의미로 피동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생략된 조사가 '-를'이라면 '게를 잡을 수 있는 거'의 의미로 '-어지다'가 가능의 의미 기능을 한다. (22ㄴ)의 '씨 막아지게'에서도 생략된 조사가 '-가'라면

8) '-어지다'가 결합된 어휘의 빈도수를 보면 '떨어지다'가 13회로 가장 많고, '알아지다'(11), '터지다'(9), '끈어지다'(7), '헤지다/허여지다'(7), '거꺼지다/꺼꺼지다'(6), '삶아지다/숭아지다'(6), '풀어지다'(6) '떡어지다'(5), '더꺼지다'(5), '바파지다'(5), '헤싸지다'(5)의 순이었다.

‘씨가 막히게’의 의미로 피동으로 볼 수 있으나 생략된 조사가 ‘-를’이라면 ‘씨를 막을 수 있게’의 의미로, ‘-어지다’는 가능의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상태변화

- (23) ㄱ. 이제 경운기가 나고 허니까 사람이 좀 편리해졌주.(이제 경운기가 나고 허니까 사람이 좀 편리해졌지.)
 ㄴ. 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생활이 아주 이제 풍족해졌지, 이젠.)
 ㄷ. 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유채, 유채 때문에 제주도 살아간 거라.(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유채, 유채 때문에 제주도 살아간 거야.)

(23)은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다. 자동사나 타동사에 결합하는 ‘-어지다’가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는 대부분 상태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정택(2004:124)은 ‘-어지다’는 다양한 형용사와 결합해 해당 형용사를 자동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그 의미는 해당 형용사가 표현하는 상태로 이행, 즉 상태변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형용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는 상태변화를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23ㄱ)의 ‘편해졌저’는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한 상태로 상황이 비로소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23ㄴ)과 (23ㄷ)도 마찬가지다. 즉, ‘편하다, 풍족하다, 넉넉하다’의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자동사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는 공통어에서는 실현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고 자유스럽다. 박혜진(2017)은 구어 말뭉치에서 ‘-어지다’와 결합하는 선행 용언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구어에서 추출된 ‘-어지다’는 타동사에 결합한 경우가 36%, 자동사에 결합한 경우는 19.8%이고 형용사에 결합한 경우는 44.2%로, 형용사에 결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⁹⁾

9) 박혜진(2017)은 ‘새 연세 말뭉치 1, 2’ 자료를 구어 말뭉치(‘강의·강연’, ‘일상 대화’)와

그런데 제주방언에서 ‘-어지다’가 형용사에 결합하는 정도를 공통어와 비교하면 그 쓰임이 제한적이다. 제주방언 구술 자료에서는 ‘-어지다’가 결합한 전체 306개의 용례 중에서 형용사와 결합한 예는 24개로 7.8%에 지나지 않는다.

박혜진(20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통어에서는 ‘-어지다’와 형용사의 결합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지다’의 의미 영역에서 상태변화의 비중이 크다. 반면 제주방언에서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예가 적어 그만큼 상태변화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제주방언에서 ‘-어지다’가 형용사에 결합하여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적은 것은 제주방언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는 ‘-암/엄-’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방언의 ‘-암/엄-’은 공통어의 ‘-고 있-’에 대응한다. 보통 ‘-고 있-’이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쓰이는 반면 제주방언 ‘-암/엄-’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형용사와의 결합도 자연스럽다.

- (24) ㄱ. 날이 볍암저.(날이 밝아지고 있어.)
 ㄴ. 셋딸 막 고웁저.(둘째 딸 아주 고와지고 있어.)

(24)는 형용사 ‘볶다(밝다), 굵다’에 ‘-암/엄’이 결합된 예로 ‘볶암저, 고웁저’는 각각 공통어의 ‘밝아지고 있어’, ‘고와지고 있어’의 의미를 갖는다. 형용사와 결합한 ‘-암/엄-’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고 있-’과 ‘-어지다’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암/엄-’이 형용사와 결합했을 때 상태변화를 의미를 갖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이러한 결합이 형용사와 ‘-어지다’의 결합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공통어에서 ‘형용사+-어지다’의 형태로 실현되는 상태변화는 제주방언에서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암/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어 말뭉치(‘신문’, ‘소설·수필’)로 나누어 ‘-어지다’와 결합하는 선행어의 비율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연구의 구술 자료와 가장 근접한 ‘일상 대화’의 수치만 제시하였다.

- (25) ㄱ. (명절이) 언제 줄어져신고 허니, 오월 단오 줄어지고.((명절이) 언제 줄었는가 하니 오월 단오 줄고.)
 ㄴ. 그 밑에 나무를 영 쏟아지게 영 가끈다.(그 밑에 나무를 이렇게 줄게 이렇게 깎는다.)

‘-어지다’는 형용사에 결합될 때뿐만 아니라 자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상태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제주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25)는 자동사 ‘줄다, 쫓다(줄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변화는 진행 중에 있기 보다는 이미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4. 완료

공통어에서 ‘-어지다’가 주로 ‘피동’과 ‘기동’, ‘상태변화’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면 ‘-어지다’의 사용 빈도에서, 제주방언에서 특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능’과 ‘완료’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완료’의 의미 기능을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어 온 ‘기동’과 비교하자면, 변화 상태의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의 문제다. ‘기동’과 ‘완료’는 상(aspect)의 일종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보이는 동작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공통어에서 ‘-어지다’의 기존 연구에서는 행위나 사건, 상태의 시작점에 초점이 놓여 있다. 반면, 다음에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방언에서는 행위나 사건이 끝난 시점을 말한다.

- (26) ㄱ. (보리) 다 비여지른 이젠 먼침 빈 차례로 무꺼.((보리) 다 베면 이젠 먼저 벤 차례로 묶어.)
 ㄴ. 그리 낱 내불민 거기서 술아지면은 그걸, 아주 저 뭐인가 보관해낫 저.(그리 낱서 내버리면 거기서 사르면 그걸, 아주 저 뭐인가 보관했었어.)
- (27) ㄱ. 딱 허게 줄이 짝 긋어지면 나무를 잘라가지고서.(딱 허게 줄이 짝 그어지면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 ㄴ. 떨러가지고서 막 떨러지면은 그 물을 뒤인가 이제 무슨거 베혜영.(달여서 잘 달여지면 그 물을 뒤인가 이제 무엇 베해서.)
 - ㄷ. 이제 다 쳐지민 영 비와근에가 식으민 영 쏟어가지고서.(이제 다 찌지면 이렇게 비워서 식으면 이렇게 쏟아서.)
- (28) ㄱ. 다음 해까지 공출혜연 끄차져불언.(다음 해까지 공출하고 끊어져 버렸어.)
- ㄴ. 망중 넘으면은 보리가 삭아져불영 비질 못하여.(망중 넘으면 보리가 삭아버려서 베질 못해.)

(26)의 ‘비여지면, 슬아지면’은 ‘베는 일’, ‘사르는 일’을 모두 마치면 비로소 ‘뉘고’, ‘보관’한다는 것이다. (27)과 (28)에서도 ‘-어지다’는 어떠한 행동이 모두 끝났음을 드러내는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28)에서는 종결의 의미를 갖는 보조용언 ‘불다(버리다)’와 결합하여 어떠한 일이 다 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5. 무의지

- (29) ㄱ. 그냥 전령병, 폐병들 든 딜 가전.(그냥 전령병, 폐병들 든 델 갔어.)
- ㄴ. 뛰어가단 보난양 가시왓 트멍에 들어가전.(뛰어가다가 보니까 가시밭 틈에 들어갔어.)
 - ㄷ. 저 두말떼기보다도 더 큰 솟은 거 무슨 솟이엔 혜신고 잊어불어졌 전.(저 두 말들이보다도 더 큰 솟은 거 무슨 솟이라고 했는지 잊어버렸어.)

‘-어지다’는 (29)에서처럼 자동사와 결합하여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29)의 밑줄 친 ‘가지다, 들어가자, 잊어불어지다’는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동사의 경우 그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의지’가 전제가 되는데 이러한 성질이 사라지면서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어지다’가 결합한 문장에서 대상의 심리 상태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태도, 저절로 행해진 행동의 의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동사와 결합하는 ‘-어지다’는 ‘무의지’를 나타낸다.

4. 결론

이 연구는 제주방언 피동의 실현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제주방언 구술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제주방언에서는 피동접미사가 결합하는 파생적 피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반면, ‘-어지다’가 결합하는 통사적 피동은 70%에 가깝게 실현되고 있다. 이를 공통어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제주방언에서 ‘-어지다’의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생적 피동으로 쓰인 예들도 ‘-어지다’의 통사적 피동형과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를 조사한 결과 통사적 표현이 우선했다. 하지만 ‘쏘이다, 뺏기다, 쫓기다’ 등 일부 동사의 경우는 통사적 피동의 형태로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방언 구술 자료집〉에서 얻은 문장을 중심으로 제주방언 ‘-어지다’의 의미 기능을 분석하면 ‘피동’, ‘가능’, ‘상태변화’, ‘완료’, ‘무의지’로 나눌 수 있었다. 공통어와 마찬가지로 제주방언에서도 ‘-어지다’가 ‘피동’의 의미 기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공통어에서라면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는 피동이 제주방언에서는 ‘-어지다’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제주방언에서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적 피동의 비율이 낮고 통사적 피동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주방언에서는 형용사와 ‘-어지다’의 결합이 활발하지 않다.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하는 경우는 보통 상태변화의 의미를 갖는데, 제주방언에서는 상태 변화의 의미 기능을 형용사 뒤에 결합하는 ‘-암/엄’이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지다’의 의미 기능 중 ‘완료’의 의미를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어 온 ‘기동’과 비교하자면, 변화 상태의 어떠한 지점에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기동’과 ‘완료’는 ‘상(aspect)’의 일종으로, 시간의 흐름에서 보이는 동작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공통어에서 ‘-어지다’의 기존 연구에서는 행위나 사건, 상태의 시작점에 초점이 놓여 있다면 제주방언에서는 행위나 사건이 끝난 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에서 제주방언 피동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 ‘-어지다’의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은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우선 제주방언에서는 공통어에서 피동접미사에 의해 실현되는 문장이 ‘-어지다’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동사의 경우는 피동접미사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뺏기다, 쏘이다, 쫓기다’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는데 이 외에 어떤 동사들이, 어떠한 특징 때문에 통사적 파생을 이루지 못하는가? 또한 공통어에서라면 피동접미사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되는 피동을, 제주방언 고령층 화자들은 ‘-어지다’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과연 어느 세대까지 이러한 제주방언의 특징이 남아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 주제어 : 제주방언, 피동접미사, -어지다, 피동, 가능, 완료, 상태변화, 무의지

참고문헌

- 강정희(2001), 「제주방언 '-아/-어지다' 구문 연구」, 『한남어문학』 25, 한남어문학회, 1-20면.
- 강정희(2006), 「제주방언 '-아/어지다' 구문의 의미 해석」, 『이병근 선생 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1223-1246면.
- 강정희(2012), 「문법화로 본 제주방언의 가능 표현 연구」, 『방언학』 제16호, 방언학회, 243-271면.
- 곽충구(2004), 「함북방언의 피·사동사」, 『어문학』 85, 한국어문학회, 1-36면.
- 김보향(2015), 「재일제주인의 언어 변화와 언어 전환 과정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세환(2007), 「구어 말뭉치 자료를 통한 피동 표현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환(2012), 「경북방언의 피동사와 피동접미사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제61집, 한민족어문학회, 311-339면.
- 남기심·고영근(2009),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수경(2011),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 박혜진(2017), 「'-어지다'의 의미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채원(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신애(2007), 「어기 및 접사 변화와 파생어의 재형성-사·피동 파생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50, 국어학회, 3-26면.
- 송상조(1996), 「제주방언의 하임·입음법에 관한 고찰」, 『국어학 연구의 오솔길』, 우전 김형주 선생 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269-291면.
- 우인혜(1997), 『우리말의 피동 연구』, 한국문화사.
- 유연(2017),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 '-어지다'와 '-게 되다'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택(2004), 『현대 국어 피동 연구』, 박이정.
- 정승철(2007), 「피동사와 피동접미사」,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127-146면.

- 정승철(2010), 「방언집측과 언어변화」, 『국어학논총』(최명옥 선생 정년기념 논
총), 태학사, 369-387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2018), 『2018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12, 20.

【Abstract】

A study on passivity in Jeju dialect — focusing on ‘-eojida’—

Kim, Bo-hyang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passivity is realized in Jeju dialect by investigating its characteristics. Compared to common language, one unique feature of passivity in Jeju dialect is that passivity based on passive suffix has a very low productivity and shows a conspicuous form of passivity using ‘-eojida’. That is, in Jeju dialect, passive expressions combined with passive suffix are not that common whereas the form combined with ‘-eojida’ are widely prevalen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ealization of passivity in Jeju dialect with the spoken corpus analyzed by Sehwan Kim(2007), lexical passivity of ‘doe-da, bat-da, dang-ha-da’ shows similar figures (27.3% and 28.5%) wherea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derivative passivity (3.6% and 40.5%) and syntactic passivity (69.1% and 31%). In Jeju dialect, ‘-eojida’ is being realized at the level of approximately 70%, which demonstrates how widely the passive expression of ‘-eojida’ is being used in Jeju dialect.

According to the result of classifying the meanings of ‘-eojida’ used in sentences of Jeju dialect introduced in <Jeju dialect oral source book>,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passivity’, ‘possibility’, ‘perfect’, ‘change of status’, and ‘involuntary’.

As in common language, there is no doubt that ‘-eojida’ in Jeju dialect is significant in the meanings related to ‘passivity’. However, in common language, passivity is realized by being combined with the passive suffix whereas in Jeju dialect, only a small portion of passivity forms are accompanied by the passive

suffix, and syntactic passivity is more prevalent.

Meanwhile, there are few cases in Jeju dialect where ‘-eojida’ is combined with adjectives. When ‘-eojida’ is combined with an adjective, it indicates the change of status. In Jeju dialect, this semantic function is replaced by ‘-am/eom’ combined at the end of an adjective. Therefore, when compared with common language, the portion of ‘status change’ in semantic function of ‘-eojida’ is low.

In Jeju dialect, passivity based on passive suffix is limited. ‘Bbat-gi-da, ssoi-da, jjet-gi-da’ are the examples, and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diachronic examination of the reason why certain verbs do not form syntactic derivatives.

【Key words】 : Jeju Dialect, passive suffix, -eojida, passivity, possibility, perfect, change of status, involuntary

김보향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
문학과

전자우편: nekonoie@hanmail.net

이 논문은 2019년 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3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